

제목: 연합뉴스-월드옥타 명예기자 33명 선발

연합뉴스는 세계 70개국 137개 지회에 6천600여 명의 정회원과 1만6천500여 명의 차세대 회원을 거느린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2008년부터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월드옥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합뉴스 및 연합뉴스TV의 콘텐츠 역량 강화에 활용한다는 목표 아래 월드옥타 회원 자녀와 차세대 회원을 대상으로 명예기자를 뽑았습니다.

월드옥타 지회장 추천과 서류 심사를 거쳐 16개국 33명이 제1기 연합뉴스-월드옥타 명예기자로 최종 선발됐습니다.

연합뉴스-월드옥타 명예기자는 기사 제보, 사진 및 영상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의 사례를 지급받습니다. 우수 활동자는 통신원으로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는 특파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한 세계 곳곳에 연합뉴스-월드옥타 명예기자들을 촘촘하게 배치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다양한 월드뉴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월드옥타 명예기자 제도는 연합뉴스 미디어그룹 취재 네트워크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생산콘텐츠(UGC, User-Generated Contents)를 기반으로 한 협력 저널리즘(collaborative journalism)의 모범 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기 연합뉴스-월드옥타 명예기자 명단

번호	나라	도시	이름
1	중국	톈진	이휘
2	중국	옌지	김경란
3	중국	베이징	한성환
4	중국	상하이	현용해
5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이선우
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승희
7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마태오
8	싱가포르	싱가포르	박지영
9	싱가포르	싱가포르	신윤희
10	일본	도쿄	강성호
11	일본	도쿄	김효정
12	일본	도쿄	박영화
13	캐나다	밴쿠버	유동석
14	캐나다	토론토	우제영
15	캐나다	토론토	최창근
16	미국	샌프란시스코	김효수
17	미국	뉴욕	손세영
18	미국	샌타클래라	한정희
19	미국	괌	이종원
20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최우형
21	파라과이	아순시온	김진현
22	칠레	산티아고	이현호
23	브라질	상파울루	이태석
24	독일	베를린	장미
25	오스트리아	빈	김지현
26	네덜란드	로테르담	서호성
27	뉴질랜드	오클랜드	제임스리
28	호주	멜버른	권순걸
29	호주	멜버른	이지연
30	호주	브리즈번	서종만
31	호주	퍼스	이지원
32	호주	시드니	김민경
33	호주	시드니	김태용